

---

---

# 윤치호와 미국 남감리교 선교

-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

---

---

강 명 속

(숙명여대 강사)

---

머리말

I. 남감리교 선교부의 개성 선교

II. 한영서원의 설립과 실업교육

III. ‘신민회’운동과 모범촌 설립운동 그리고 학생YMCA운동

IV. 개성상인들의 ‘신민회’에 관한 반응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2425).

● 투고일: 2016. 11. 1.    ● 심사일: 2016. 11. 6.    ● 게재확정일: 2016. 11. 24.

www.kci.go.kr

## 요약

1885년부터 1893년 가을까지 중국과 미국 남부에서 유학한 윤치호는 귀국 후 개성상인들의 풍부한 자본과 상재(商材)를 조선의 산업발전에 이용하기 위해 남감리교의 개성선교를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그러나 남북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국 남감리교는 남부의 발전을 위해 흑인선교와 아프리카 선교에 몰두하였으므로 아시아 선교는 소극적이었다.

중국 선교부와 윤치호의 노력으로 조선 선교가 시작되었으나 남감리교 선교본부의 지원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였다. 더구나 조선에 파견된 남감리교 선교사들은 중국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중심 말씀 중심의 선교를 고집하여 윤치호가 계획한 조선 근대화를 위한 개성 선교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윤치호는 남감리교 중국 선교부의 선교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개성으로 이주하여 ‘한영서원’을 설립하고 농업중심의 실업교육에 나섰다. 윤치호의 실업교육은 농업을 육성하여 생산을 증진하고 그를 바탕으로 조선의 산업화를 추진하려는 중농주의 산업화였다. 그러나 농업중심의 실업교육(반공파)은 일제가 제정한 ‘사립학교령’과 ‘개정 사립학교령’에 의해 공업부로 재편되어 일제가 요구하는 노동자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한영서원의 실업장은 선교사들의 주도로 근대 공장으로 변모하였으나 조선의 산업화를 견인하지 못하고, 가난한 학생들의 학비를 제공하는 선교부의 공장으로 전락하였다.

1907년 안창호와 손잡은 윤치호는 개성상인들을 민족자본가로 결집하려는 ‘신민회’ 운동을 전개하였다. 윤치호는 모범촌을 만들고 개성상인들을 모범촌에 참여시킴으로 ‘신민회’ 회원을 모집하려 하였다. 그러나 선교본부의 지원이 미진하여 모범촌을 설립하지 못했고 산업화의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여 이재에 명민한 개성상인들의 참여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래도 윤치호는 미국을 방문하여 선교본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학생 YMCA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개성상인들의 ‘신민회’ 참여를 끝내 유도하지 못했다. 윤치호가 추진한 개성상인들의 민족자본가화는 실패하였고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루어야 했다.

윤치호가 파트너로 설정한 개성상인들이 조선의 근대화운동을 외면한 이유는 개성상인들의 자본이 토지와 대부업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성상인들은 일제의 조선미 수탈정책과 인삼전매제도 그리고 금융경영에 편승하여 인삼과 미곡 중심의 토지 경영과 고리대금업에 안주하면서 산업자본가로의 변신을 외면하였다. 그러므로 개성상인을 근대화의 파트너로 선택한 윤치호는 개성상인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종교운동과 교육운동 사회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개성상인들의 변화를 기다렸다고 하겠다. 윤치호는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민족 발전에 투신할 기독교 자본가의 출현을 남감리교 선교를 통해 도모하였으나 선교와 변혁의 대상이었던 개성상인들은 윤치호의 노력을 외면하였다.

윤치호는 유학시절 입장료를 내면서 쫓아다녔던 존스(Samuel P. Jones: ‘남부의 Moody’로 불림)의 부흥운동이 조선에서도 재현되어 라이먼(T. G. Ryman)과 같은 희생적인 자본가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윤치호가 간절히 바라던 조선의 근대화는 이기적인 식민지 토착자본의 논리와 선교사들의 자기편의적 선교정책 그리고 일제의 탄압에 둘러 싸여 갈 길을 잃었다고 하겠다.

주제어 : 윤치호, 남감리교, 한영서원, 신민회, 모범촌 설립운동, YMCA운동, 개성, 개성상인

## 머리말

제3세계는 서구 제국주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 힘의 양성에 치중해왔다. 하지만 자체 세력과 방법론이 없는 힘의 양성은 합리적 구체성과 실질적 방법론을 획득하지 못해 제국주의를 모방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국과 일본 등 후진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조선 왕조는 침략자들의 후진 근대화라도 수용하려 하였으나 거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후 서양 근대화의 모델로 첨가된 것이 미국 문화였는데 그 통로는 미국 교파교회의 선교였다.

일찍이 미국 유학으로 서구 문물에 눈뜬 윤치호는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미국 남감리교를 수용하려 하였다. 이런 윤치호에 관한 연구는 개화사상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조선왕조를 둘러싼 외세에 관한 인식, 개화사상에 따른 개혁활동, 기독교적 선교활동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친일파에 관심으로 가지면서 근대적 개혁이었지만 일제 말 친일파가 된 윤치호를 대표적 친일파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근대적 개혁을 주도하던 윤치호가 친일파가 된 원인을 살피려는 연구가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윤치호의 개혁사상과 활동에 관한 부문별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구체적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부분은 윤치호의 개혁방법이 기독교적이라는 원론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sup>1)</sup> 그 결과 조선사회의 유교적 타성을 극복하고 자유주의를 수

---

1) 민경배, 1978, 「初期 尹致昊의 基督教信仰과 開化思想, 1883年에서 1905年까지를 中心으로」, 『동방학지』 19. 연대 국학연구원; 김수인, 1983, 「평신도로서의 윤치호의 신앙과 그의 활동에 관한 연구」, 감리교 신학대학원 석사; 이희환, 1985, 「開化期 尹致昊와 基督教信仰」, 『논문집』, 群山大學; 양현혜, 1994, 『윤치호와 김교신 : 근대

용하는 사상적 통로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논의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sup>2)</sup> 뿐만 아니라 윤치호의 개혁활동을 종교적 사업과 구분하지 않아 선교활동을 교회의 성립과 발전에만 국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연구 경향으로 말미암아 윤치호의 개혁활동은 종교적이고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런 부분을 제고하기 위해 윤치호가 미국에서 배운 기독교적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 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적 방법이 의미를 가지려면 윤치호가 사용한 기독교적 개혁 방법이 실제로 적용되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글은 윤치호의 기독교 선교활동이 종교적 인식을 넘어 조선의 개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윤치호의 기독교적 근대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간과되어온

---

조선에 있어서 민족적 아이덴티티와 기독교』, 한울, 진기섭, 1992, 「尹致昊의 民族運動에 나타난 宣敎活動 考察」, 監神大 大學院 석사; 이경, 1997, 「開化期 尹致昊의 歷史意識과 基督教 信仰」, 『神學과 社會』 11, 한일신대 기독교종합연구원; 안신, 2007, 「좌옹 윤치호의 종교경험과 종교론 : 종교현상학적 해석」, 『한국기독교와 역사』 2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덕주, 2010, 「윤치호와 한말 기독교 선교 : 위기의 시대 평신도 선교의 한 유형」, 『神學과 世界』 통권 68호, 監神大.

- 2) 이회환, 1983, 「윤치호의 개화사상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 28~34쪽; 유영렬, 1985, 『개화기 윤치호 연구』, 한길사, 173~181쪽; 최남옥, 1999, 「윤치호의 개화론 연구」, 이대 대학원 석사, 12쪽, 21쪽; 정용화, 2001, 「문명개화론의 뒷; 「윤치호의 일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론』 41-4, 한국국제정치학회, 306쪽; 권윤진, 2004, 「한말 계몽운동에서의 민족문제 인식과 근대개혁론」, 연대 교육대학원 석사, 40~44쪽; 류계무, 2004, 「윤치호 사회진화론 특징 연구 : 애국계몽운동 시기(1906~1910)을 중심으로」, 연대 대학원 석사, 37~43쪽; 유미진, 2005, 「윤치호의 미국유학과 근대문명관」, 이대 대학원 석사, 28~31쪽; 안신, 2007, 「좌옹 윤치호의 종교경험과 종교론 : 종교현상학적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27호, 60~64쪽; 박신애, 2008, 「개화기 윤치호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적용」, 이대 대학원 석사, 22~23쪽; 노대환, 2010, 「1880년대 문명개념의 수용과 문명론 인식」, 『한국문화』 43, 서울대 규장각 국학연구원, 241쪽; 유불란, 2013, 「우연한 독립의 부정에서 문명화의 모순된 긍정으로-윤치호의 사례」, 『정치사상연구』 19-1, 한국정치사상학회, 88~89쪽.

것은 윤치호가 개성을 남감리교 선교의 중심지로 삼은 이유이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이견혁(李健赫)이 개성 유지로 윤치호의 남감리교 선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으로 보거나<sup>3)</sup> 교파 선교사들의 선교 지역 분할 때문으로 보고<sup>4)</sup> 있다. 남감리교에 배당된 선교구역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함경도와 강원도 등 산지가 많고 인구가 적어 선교하기에 부적합한 곳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남감리교 선교지로 할당된 이유가 선교가 늦어 지역적 세력 지분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윤치호가 개성 선교를 위해 이들 지역을 남감리교의 선교지역으로 받는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근대화는 서구문명의 단순한 이식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산업화를 이루고 이에 맞는 정치제도(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를 수행할 자본가 세력의 양성이 우선적이다. 그런 면에서 조선의 근대화를 염원하던 윤치호가 개성을 남감리교 선교의 중심지로 삼은 것은 전통적 개성상인들을 근대적 자본가로 전환시키려는 입장에서 개성과 그 주변지역을 남감리교 선교지역으로 할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윤치호는 개성상인들을 중심으로 근대적 자본가 세력을 형성하고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개성 중심의 남감리교 선교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윤치호가 주도한 남감리교의 교육 선교는 미국 교파교회들이 그들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마구잡이로 시행하던 저급한 서구 문명의 학습이 아니라 미국 남부에서 널리 시행되던 농업중심의 실업교육이었다.<sup>5)</sup>

---

3) 윤춘병, 1995, 「윤치호와 감리교회」, 『좌옹윤치호 서한집-이후 윤치호 서한집』, 호산문화, 262쪽; 이 덕주, 2010, 「윤치호와 한말 기독교-위기의 시대 평신도 선교의 한 유형」, 『신학과 세계』 통권 68호, 감신대, 141~143쪽.  
4) 좌옹윤치호문화사업회 편, 1998, 『윤치호의 생애와 사상』, 을유문화사, 94쪽; 김소희, 2006, 「윤치호의 조선독립보전방안연구-모범촌 구상(1906~1910)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 33쪽.

그러므로 윤치호가 주도한 남감리교 선교가 개성 중심으로 전개된 것과 농업중심의 실업교육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윤치호의 표현대로 “조선에서 가장 훌륭한 상업가들”<sup>6)</sup>이 모여 사는 곳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남감리교 선교가 무엇을 목표로 삼았는지가 윤치호 근대화론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윤치호가 주도한 남감리교의 개성 선교 즉 개성에 대한 근대적 개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피려 한다.

## I. 남감리교 선교부의 개성 선교

윤치호는 1895년 귀국 이후 개성을 중심으로 선교사업과 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이로 보아 개성에 대한 윤치호의 생각이 특별했다고 할 것이다. 윤치호는 근대화 운동의 통합적 지원을 창출할 수 있는 고향을 버리고 개성에서 근대화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것은 단순히 타 교

- 
- 5) “저녁 후에 나는 아저씨에게 이번 여행의 목적은 송도에 선교부와 농업학교를 건설하기 위한 사전 조사라고 말했다.” 『윤치호 일기』 5, 1897. 2. 10. 국사편찬위원회; “저는 조선에 산업학교 외에 어떤 종류의 교육사업도 원치 않습니다.” Letter to Warren A. Candler, 1897. 2. 25, 윤치호 지음 윤경남 번역, 1996, 『구역 좌옹 윤치호 서한집-이후 윤치호 서한집』, 호산문화; “실업학교는 선교부가 실행해야만할 유일한 교육 방법이다. -중략- 연장 다루는 방법을 알거나 연장을 잘 다루는 청년이 세익스피어나 스펜서를 인용하는 청년보다 더 바람직한 시민이다.” 『윤치호 일기』 5, 1902. 10. 31,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sa&setId=59043&position=57>(2015~2016년 열람).
- 6) “송도는 - 자연의 산물로- 아름다운 곳이며 사람들도 부지런해 보입니다. 대부분이 농부와 상인들이며, 송도의 인구는 조선에서 가장 훌륭한 상업가들이 모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etter to W. A. Candler, 1897. 2. 25, 『윤치호 서한집』.

과의 선교지역을 의식해서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근대화 사상을 전개하기에 개성이 알맞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sup>7)</sup> 윤치호에게 개성은 근대화를 전략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유망한 지역으로 보였기에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윤치호가 계획한 남감리교의 개성 선교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남감리교의 개성 선교가 어려웠던 이유를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려 한다. 이것은 윤치호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종교 운동으로 오인된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윤치호가 주도한 개성 선교는 처음부터 어려웠다. 윤치호가 서구 학문을 학습한 곳은 남북전쟁에서 패배한 미국의 남부였고 시기적으로 “도금시대(Gilded Age)”였다.<sup>8)</sup> 당시 미국 남부는 자본주의가 발전한 곳이 아니라 소작농 중심의 농업적 기반을 벗어나지 못한 낙후된 지역이었으며,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수탈이 인종과 지역을 매개로 극심하게 전개되던 패전지역이었다. 또한 남북전쟁이 끝난 지 20여 년이 지난 ‘포스트 재건 시기(post reconstruction era; 1879~1895)’였지만 미국 남부와 남부의 교회

---

7) “송도에서 여는 산업학교는 의심할 여지없이 성공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Letter to W. A. Candler, 1897. 2. 25, 『이후 윤치호 서한집』; “그 도시(개성-연구자)는 전략적 거점으로 조선에서 유망한 곳입니다.” 『윤치호 일기』 5, 1902. 10. 31, 국사편찬위원회.

8) 도금시대(The Gilded Age; 1874~1893년)-마크 투웨인과 찰스 두들리 워너의 동명 소설 『도금시대』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당시 철강 왕 앤드류 카네기, 석유 왕 존 록펠러, 광산 왕 마이어 구겐하임, 선박 왕과 철도 왕으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린 등 거대한 독점 자본가들이 나타났고, 1894년에는 미국 공업생산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공화당은 타락하였고, 민주당은 보수적이었다. 미국 경제는 유례없는 발전을 이루었지만 남북 모두 흑인을 희생하고, 부패와 정경유착, 투기 자본의 사기와 협잡이 난무하였다. 이렇게 걸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썩은 자본주의 시기를 황금기가 아닌 도금된 가짜 황금기라고 풍자한 용어이다. 성경준, 2006, 『마크 트웨인과 남북전쟁 이후의 자본주의-도금시대를 중심으로』, 『근대영미소설』13-2, 한국근대영미소설학회, 57쪽.

들은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했다.<sup>9)</sup>

남북전쟁의 패배로 노예를 잃은 농장들은 살아남기 위해 고정임금제(fixed wages), 정액임대제(fixed rent), 비례분배제(shares) 등 소작제로 운영되었으나 지주와 소작농 모두 어려운 지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급 분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sup>10)</sup> 몰락한 자영농들은 “가난한 백인(Poor White)”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부류를 형성하면서 소작제 속에서 해방된 흑인들과 경쟁하였다.<sup>11)</sup> 몰락한 백인들은 모자란 생활비를 부채로 조달하면서 화폐획득을 위해 상품작물(면화) 생산에 내몰리고 있었다. 더하여 북부의 산업화정책과 관세정책이 가중되면서 남부의 대농장과 자영농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 1880년대 남부의 농가소득은 1860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sup>12)</sup>

남북전쟁 이후 별도의 조직으로 남아있던 남감리교도 존립을 위한 교세 확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으나 파괴된 교회의 재건과 교세 확보가 쉽지 않았다. 남감리교는 남부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먼저 인종간의 화해와 흑인 선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남부의 주산업인 농업발전을 위해 흑인들의 이주를 막아 농업노동력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리고 흑인들에게 농업교육이나 기술교육을 주선하여 남부에서 농민으로 또는 생활용품의 생산자로 살아가게 만들었다. 무일푼으로 해방된 흑인들도 정치적 권리의 획득보다 경제적 생존을 위해 남감리교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었다.<sup>13)</sup> 그러므로 남북전쟁

9) 손현덕, 1989, 「남북전쟁 이후 미국 남부의 소작제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 석사, 8~10쪽; 양동휴, 1990, 「남북전쟁 이후 미국 남부의 경제의 변모-미국 남부경제의 발전 1860~1880」, 『경제논집』 29-3, 서울대 경제연구소, 303~310쪽.

10) 김정, 1970, 「남북전쟁 후의 남부의 흑인문제」, 『논문집』 5, 광주교대, 4쪽; 손현덕, 1989, 위의 논문, 11~13쪽.

11) 황혜성, 1996, 「신 남부 백인의 소수집단 심리와 극단적 인종주의」, 『미국학논집』 28-1, 한국아메리카학회, 274~288쪽.

12) 양동휴, 1994, 위의 책, 58~71쪽.

이후 남감리교는 피폐한 남부의 발전을 위해 넉넉지 않은 선교력(재원과 인원)을 흑인과 아프리카 선교에 투자해야만 했다.

그 결과 동양선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하였는데 중국 선교는 중국인에 대한 멸시 풍조로 더욱 어려웠다.<sup>14)</sup> 더구나 중국이나 일본과는 비교할 수도 없던 조선 선교는 더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치호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설교여행을 다니면서 조선 선교를 촉구하였으며 설교여행에서 얻은 기금을 조선 선교 기금으로 캔들러(W. A. Candler) 에모리 대학 학장에게 맡기기도 하였다.<sup>15)</sup> 남감리교는 조선 선교를 위해 윤치호를 교육시켰고 윤치호의 귀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sup>16)</sup> 하였지만 조선에 대한 정보 부족과 재정 부족 그리고 인원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남감리교 선교부는 조선 선교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남감리교의 조선 선교는 기독교에 배타적인 중국 선교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던 남감리교 중국 선교부의 노력과 윤치호의 노력이 만나 이루어진 것이다.<sup>17)</sup> 그 결과 조선 선교는 선교 기금과 요원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위약한 남감리교 선교본부와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던 남감리교 선교부에 조선 선교가 위임되면

- 
- 13) “1870년대 재건사업의 실패와 인종차별의 격화로 - 중략 - 싱글톤(B. Singleton)이나 에덤스(H. Adams)와 같은 운동가들은 이주운동을 전개하여 흑인들은 캔자스 카리브 해 연안 북부지방으로 이주하였다.” ed. by Gerald D. Jaynes, 2005, *Encyclopedia of African American Society* 1, Sage Publication Inc., “activists” p.12.
  - 14) 『윤치호일기』 2, 1890. 2. 14.; 1890. 3. 2.; 1890. 4. 1.; 1890. 5. 9.; 1892. 4. 18; 1892. 6. 19; 1892. 9. 10.; Letter to Dr. Young J. Allen, 1893. 12. 18, 『윤치호 서한집』.
  - 15) 『윤치호일기』 3, 1893. 3. 6; 11; Letter to Dr. Young J. Allen, 1893. 3. 16, 『윤치호 서한집』.
  - 16) 그런데 오늘 아침 알렌 박사는 내가(윤치호-연구자)조선에 돌아가야만 한다면 정부에서 일하라고 하였다. 그는 “선교를 위해 발휘할 수 있는 너의 영향력은 기독교인의 직업으로서 목사가 되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돕는 것이 훨씬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치호일기』 4, 1896. 12. 31.
  - 17) 이택주. 앞의 논문, 138~143쪽.

서 그 어려움은 더욱 컸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겪은 어려움은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선교정책 때문이었다. 중국에 주재하던 남감리교 선교회를 자극하여 조선 선교를 가능케 한 윤치호는 처음부터 개성 중심의 선교를 요구하였다.<sup>18)</sup> 그러나 윤치호의 선교 요구에 따라 1895년 10월 내한한 헨드릭스(E. R. Hendrix) 감독과 리드(C. F. Reid; 李德) 선교사는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북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튼을 통해 서울에 선교 부지를 물색하고 돌아갔다.<sup>19)</sup> 이후 조선 선교의 책임자가 된 리드는 1896년 8월 가족과 함께 서울에 정착하여 직접적인 복음전도와 교회 설립을 구상하고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러시아를 방문한 윤치호의 귀국을 기다렸다. 리드는 학교와 병원을 매개로 한 간접 선교가 중국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조선에서는 직접적인 복음전파를 시도하려 하였다. 반면 윤치호는 선교 사업에서 실업교육을 강조하였다. 1897년 1월 말 귀국한 윤치호는 2월 리드와 함께 개성을 돌아보고 개성 중심의 남감리교 선교와 실업학교 설립을 미국 선교본부에 요청하였다.<sup>20)</sup>

그러나 매서인들의 활동에 고무된 리드와 콜리어(C. T. Collyer, 高永福)는 개성 산지현에 삼포막을 구입하여 개성에 복음 전도를 시작하였고,

- 
- 18) “만약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한다면 서울에서 60마일 떨어진 한국의 옛 수도 개성이 의료나 교육 복음 전도 사업을 하기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Letter to Dr. Young J. Allen, 1895. 7. 1, 『윤치호 서한집』; “나는 헨드릭스 감독에게 실업 교육 실시를 요구하는 편지를 썼다.” 『윤치호일기』 4, 1895. 11. 8. 국사편찬위원회; “저녁 후에 나는 아저씨에게 이번 여행의 목적은 송도에 선교부와 농업 학교를 건설하기 위한 사전 조사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그 사업을 수궁하고 성실히 도울 것을 약속하였다.” 『윤치호 일기』 5, 1897. 2. 10. 국사편찬위원회.
- 19) Letter to Dr. Young J. Allen, 1895. 10 21, 『윤치호 서한집』; 이덕주, 2010, 앞의 논문, 144~145쪽.
- 20) “남감리교 감독회 선교는 이곳 송도에 자리 잡고 송도 가까운 지방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략- 송도에서 여는 산업학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성공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Letter to W. A. Candler, 1897. 2. 25. 『윤치호 서한집』.

리드 선교사는 서울로 돌아와 남송현(현 한국은행 근처) 자기 집에서 1897년 6월 교회를 설립하였다.<sup>21)</sup> 윤치호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통해 조선의 정치적 개혁(의회와 입헌군주제의 실현)을 도모하면서 리드의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 운영을 도왔다. 하지만 리드의 서울 선교활동을 선교력과 제정의 낭비라고 생각하였고 교파 분리로 인한 쓸데없는 경쟁이라고 비난하였다.<sup>22)</sup> 이런 서울 중심의 선교는 1897년 10월 남감리교 해외여성교회의 파송을 받아 내한한 캠벨(J. P. Campbell, 姜募仁)에게서도 반복되었다. 캠벨은 중국 선교의 경험을 살려 자골(서울 내자동)에 여성교부를 설립하고 여성교육을 위해 배화학당을 설립하였다. 이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종교교회’와 ‘자교교회’를 설립하여 남감리교의 선교는 서울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독립협회’ 활동의 실패로 지방으로 쫓겨난 윤치호는 덕원 삼화 무안지방의 감리로 또는 천안 직산지방의 군수로 전전하면서도 개성중심의 남감리교 선교를 강하게 요청하였다.<sup>23)</sup> 그러나 남감리교 선교부의 서울 중심 선교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06년 3월 30일 왓슨(A. W. Wasson; 王永德) 선교사의 부임을 계기로 개성을 방문한 윤치호는 개성에 대한 남감리교 선교가 매우 부족하다

---

21) 이덕주, 앞의 논문, 154~157쪽.

22) “리드 박사는 오늘 아침 자신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 결과 리드와 스크랜튼 부인은 오직 진흙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교회를 세웠다. 교파적 경쟁과 분열 때문에 힘과 자금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는 것인가! 스크랜튼 부인의 번성하는 교회 바로 옆에 교회를 설립하는데 대한 나의 질문에 리드박사는 우리 교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실하게 대답했다.” 『윤치호 일기』 5, 1897. 6. 20. 국사편찬위원회.

23) “송도는 남감리교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감리 교회는 감리교(북감리교-연구자)에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남감리교의 선교는 온전히 송도로 집결되어야 한다. 그 도시(개성-연구자)는 전략적 거점으로 조선에서 유망한 곳이다. 게다가 송도는 이미 남감리교 선교지로 타선교부들의 무언의 동의를 얻었다. 만약 남감리교 선교부가 시간과 힘을 분산시킨다면 송도 사업은 장비와 인력의 부족으로 실패할 것이며, 선교부에서 가난한 개의 역할을 하는데 머물 것이다.” 『윤치호일기』 5, 1902. 10. 31. 국사편찬위원회.

고 느꼈다. 이미 개성은 남부에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건축되었고 수 백 명 기독교인들이 있으므로 30여 가정의 선교사가 파견되어도 충분한 지역인데도 겨우 3가정의 선교사와 2명 여선교사를 파견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하였다.<sup>24)</sup> 뿐만 아니라 개성이 남감리교의 선교지로 많은 교인들이 생겼음에도 선교부가 개성선교를 방치하여 개성에는 학교도 병원도 공동체도 하나 설립하지 못해서 남감리교 세력을 YMCA나 영어학교에 뺏기고 있다고 비난하였다.<sup>25)</sup>

윤치호가 실행하려던 개성 중심의 남감리교 선교는 남감리교 선교부의 소극적 지원과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서울 중심, 복음 중심 정책에 밀려 미미한 상황에 있었다. 더구나 선교사들이 비협조적이어서 이미 설립된 “독립 교회(Independent Church)”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윤치호는 이런 개성 선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나서게 되었다.

24) “오후 7시 600여 명의 좌석을 갖춘 ‘남부교회’로 갔다. 교회는 사람들로 구석자리까지 가득 찼고 밖에도 가득했다. 나는 관중들에게 조선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종류에 대해 연설했다. 10년 전 나는 리드선교사와 함께 개성을 방문했다. 당시 개성에는 1명의 선교사도 1명 기독교인도 1개의 교회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선교사 세 가정과 두 명의 여선교사 그리고 수 백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윤치호일기』 6, 1906. 3, 30. 국사편찬위원회.

25) “남감리교가 송도를 선교활동의 중심지로 만들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에서 남감리교가 유약한 것은 선교부의 분산정책 때문이다. 선교위원회는 송도를 남감리교에 할당하였으나 남감리교 선교부는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실패하였다. 송도에는 학교도 병원도 없으며 교회공동체도 형성되지 못했다. 분산정책은 이미 신자들을 어렵게 하며, 몇몇 지도자들이 만든 ‘독립교회’마저도 선교사들의 방해로 신자들을 YMCA나 영어강습소에 넘겨주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일본인들이 만드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 송도는 30가정의 선교사들이 담당할 만한 곳인데 겨우 3명의 선교사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 『윤치호일기』 6, 1906. 3, 30. 국사편찬위원회.

## II. 한영서원의 설립과 실업교육

1897년 개성 선교를 시작하면서 윤치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견혁을 통해 개성사람들을 만난 것이다. 윤치호의 이모부로 알려진 이견혁은 중국 남감리교 선교부에 선교요청서를 보내 선교를 자극하기도 하였지만<sup>26)</sup>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조선 왕조의 홍삼 전매를 위해 설치된 내장원 삼점과의 과장이었다는 것이다. 이로 보아 그는 이전부터 인삼재배에 종사하면서 인삼업자들의 구심점을 이루어 조선 왕조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보인다. 더구나 개성지역에서 3000석 정도를 추수하는 지주로 상당한 자본을 축적하였으며, 1900년 이후에는 ‘대한천일은행’의 주주 명부에도 나타나<sup>27)</sup> 개성상인들의 움직임에 빠지지 않고 있다. 즉 윤치호는 개성 선교를 위해 이견혁을 포섭하고 그를 통해 개성지역의 유진인 삼업 종사자들을 만났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삼업종사자들을 남감리교의 일차적 선교대상으로<sup>28)</sup> 삼고 서구적 근대화를 도모하려 했던 것이다. 개성 선교는 이들 인삼업사들의 정보와 재정적 지원을 얻어 학교와 교회를 설립할 기초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윤치호는 개성상인들을 포섭하기 위해 엄비와 대원군의 세력마저 이용하였다. 윤치호는 당시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엄비에게 굶거리 비용을 제공하거나 대원군에게 1500달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원군과 엄비의 세력을 등에 업었다. 윤치호는 엄비와 대원군의 세력에

---

26) 이덕주, 앞의 논문, 142쪽.

27) 이승렬, 2004, 「한말 은행가 집단의 형성과 광무정권: 대한천일은행의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24, 연대출판부, 563쪽, 595쪽.

28) “Korea; Planing for Work” MRM, Feb. 1897, 496쪽. 이덕주, 앞의 논문, 151면에서 재인용.

기대어 개성의 관리들과 일본인들 그리고 개성상인들의 청탁을 들어주면서 개성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선교를 추진하였다.<sup>29)</sup>

그러나 남감리교의 개성 선교는 윤치호의 의도만큼 진척되지 못하였다. 윤치호는 선교부의 소극적 선교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을사늑약의 굴욕적 현장에 있었던 윤치호는 주변의 권유를 마다하고 관직을 사직하였다. 윤치호는 ‘대한자강회’ 회장으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면서도 1906년 가을 연고도 없고 집도 없는 개성으로 이주하여 왓슨의 집에 머물면서 개성 중심의 선교 사업을 추진하였다.<sup>30)</sup> 그러나 남감리교 선교사들은 아직도 서울 중심의 선교를 지속하고 있어서<sup>31)</sup> 윤치호는 송도에 거주하면서 일할 선교사의 파견을 요청하였다.<sup>32)</sup> 뿐만 아니

- 
- 29) “내가 3년 전 처음 송도에 왔을 때 나는 무명의 개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런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어렵게 하는 권력가들을 만나기 위해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년 서울에 있을 때 나는 엄비를 알현하고 그의 산천제사에 필요한 재원을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다. 결과 송도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유명한 일본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송도의 성실하고 능력 있는 관리들도 나를 신뢰하게 되었다. 또한 작년 봄 서울에서 대원군은 나에게 1500달러를 빌려 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나는 그것을 빌려주었다. 이후 업무로 여기에 오는 모든 관료들은 나를 만나려 하며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도 나의 도움을 원한다. 인생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나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끊임없이 두려워할 것이다.” 『윤치호 일기』 5, 1897. 10. 14. 국사편찬위원회; “매우 추웠던 1월 16일 나는 콜리어씨의 초청으로 그의 교인들에게 연설하러 송도에 갔다. 오전 8시 20분 남대문을 떠나 12시에 송도역에 도착했다. 역에는 콜리어와 아저씨(이건혁-연구자)의 아들 그리고 포목상의 대표자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윤치호일기』 6, 1906. 3. 30. 국사편찬위원회.
- 30) “저던(Gerdine-연구자) 형제가 작성한 추천서(게획서-연구자)를 박사님이 승낙하시는 데로 저는 과수원과 정원을 구입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과실과 채소재배 분야에 송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득 있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Letter to W. A. Candler, 1906. 10. 17. 『윤치호 서한집』; “이곳엔 저의 집이 없습디다만 9월 후반에 개성 송도로 중심지를 삼았습니다.” Letter to Young J. Allen, 1906. 12. 25, 『윤치호 서한집』.
- 31) 『윤치호 일기』 6, 1906. 3. 30, 국사편찬위원회.
- 32) “그 사람들은 누구도 송도에 시간과 관심을 쏟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

라 개성을 남감리교의 선교 중심지로 만들기 위하여 감리교 인사들을 초청하여 개성의 장점을 알리려고 노력하였다.<sup>33)</sup> 나아가 선교 10주년을 기념하는 조선 남감리교 연회에 캔들러 감독을 초청하는 등 개성중심의 선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sup>34)</sup>

윤치호는 1906년 가을 왓슨, 콜리어의 지원을 받아 선교사들이 가르치던 야학을 ‘한영서원’으로 개칭하고 정규 교육을 실시하였다. 윤치호는 “세익스피어는 두었다가 읽을 수 있지만 토지는 지금과 같은 형편으로 기다리지 않는다.”<sup>35)</sup>면서 학생들에게 농사일에 매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에게 밭이랑을 배당하여 사탕수수 땅콩 옥수수 등 미국 남부에서 면화대신 경작하는 작물들을 재배하게 하였으며<sup>36)</sup> 이를 위해 농사일에 능통한 선교사의 파견도 요청하였다.<sup>37)</sup>

이외에도 반공과를 설치하여 직조 전기 기계 목공 인쇄 피혁 기술들을 가르쳤는데 이들 실업교과의 설치 기준은 첫째 학생들이 졸업이후 가장 적은 돈과 시간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둘째 생산에 필요한 재료나 기구가 주변에서 얻기 쉬워야 할 것, 셋째 단 기간의 노력으로 대가를 얻

---

종일 일을 계속합니다. 송도엔 적어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곳에만 영구적으로 거주할 사람이 두 명 필요합니다.” Letter to Young J. Allen, 1906. 12. 25, 『윤치호 서한집』.

- 33) 1907년 4월 13일에 램부드 박사와 웨스트, 스티렐씨가 YMCA 일로 상해와 도교를 방문한 후 윤치호를 따라 조선에 들러 개성을 돌아보고 개성중심의 선교사업을 찬성하였다. Letter to W. A. Candler, 1907. 4. 16. 『윤치호 서한집』: 1908년 송도에서 열리는 남감리교 연회에 캔들러 부부를 초빙하였다. Letter to W. A. Candler, 1907. 10. 13. 『윤치호 서한집』.
- 34) 김영희, 1999, 『좌옹윤치호선생약전-이하 약전』, 좌옹윤치호문화사업위원회, 247~252쪽.
- 35) 김영희, 1999, 『약전』, 252쪽.
- 36) 김영희, 1999, 『약전』, 252쪽.
- 37) “박사님이 보내신 나무를 심었습니다. 호두나무도 심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일할 줄 아는 농부가 필요합니다. 그런 농부를 만날 때까지는 나무 심는 일은 실제로 쓸데없는 것입니다. 목화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Letter to W. A. Candler, 1907. 4. 16. 『윤치호 서한집』.

을 수 있는 것이었다.<sup>38)</sup> 바꾸어 말하면 실업교과의 설치 기준은 적은 자본으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시장성이 많아 상품 생산과 사업을 시작하면 곧바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려는 의지의 산물이었다. 개성 상인들 속에서 움직이던 차인과 사환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사업에 투신하게 함으로써 조선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기준이라 할 것이다.

윤치호는 ‘한영서원’의 운영 모델을 ‘투스키기 학교(Tuskegee Normal and Industrial Institute)’에서 구하였다.<sup>39)</sup> 1910년 애틀랜타에서 열린 남감리교 평신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간 윤치호는 알라바마주 투스키기에 있는 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방법을 재확인하였다.<sup>40)</sup> 윤치호가 유학할 당시에도 방문하여 강한 인상을 받았던 학교로 1890년대 크게 발전하여 남부 흑인들의 희망이 된 학교였다. 이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남부 농업에 필요한 농업기술(윤작법)과 면화 대체작물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드는 제조방법들(recipes)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투스키기 학교’는 1차적으로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그 생산물로 2차 산업을 일으키는 기술과 방법을 제공하는 학교였다. 게다가 이 학교의 교장 워싱턴(Booker T. Washington)은 미국 대통령의 자문으로 흑인들을 위한 정책 실현과 학교설립에 앞장서고 있었다.<sup>41)</sup> 윤치호는 ‘투스키기 학교’를 모델로 ‘한영서원’을 운영하여 조선의 농업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 하였다.

38) 김영희, 1999, 『약전』, 254쪽.

39) “특히 램부드 박사님은 제가 가면 저희의 개간사업 계획을 실행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Booker Washington의 사업과 그 외의 비슷한 기관들을 방문하여 이곳에 돌아오기 전에 도움이 되는 제안들을 이 비옥한 땅으로 끌어오리라 생각하십니다.” Letter to W. A. Candler, 1907. 7. 28. 『윤치호 서한집』; 김소희. 앞의 논문, 21~22쪽; 박신애, 앞의 논문, 32쪽.

40) 김영희, 『약전』, 258쪽.

41) <http://www.encyclopediaofalabama.org/article/h-1506#sthash.Clia901s.dpuf>; 2016년 12월 열람, <http://www.preservationnation.org/rosenwald/history.html> 2016년 12월 열람.

그러나 윤치호가 ‘한영서원’을 중심으로 전개한 조선의 산업화 노력은 1911년 제정된 일제의 ‘사립학교령’과 1915년 개정된 ‘개정 사립학교령’에 의해 공업부로 변환되어 농업중심의 실업교육은 일제가 요구하는 노동자 육성교육으로 변질되었다. 뿐만 아니라 윤치호가 실시하려던 조선에 맞는 실업교육은 선교사들의 어설픈 정책으로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선교 본부의 지원으로 1910년 겨울 ‘한영서원’에 파견된 실업부 지도자 딜(C. H. Deal)은 실업교육과 교내에 세워진 방직공장을 의욕적으로 혁신하였다. 새로운 농작물의 경작뿐 아니라 설탕제조법을 가르쳤으며, 죽담기를 폐지하고 발동기와 역직기를 들여와 방직공업을 혁신하여 세계로의 진출을 도모하였다.<sup>42)</sup>

그러나 윤치호는 딜의 죽담기 폐지를 찬성하지 않았다. 윤치호는 조선 산업은 조선 사람이 사용하고 소비하기 적당한 것을 만들어야 하며 조선 사람이 경영할 것을 요구했다.<sup>43)</sup> 윤치호는 조선의 산업과 시장을 조선인의 것으로 만들려했기에 선교사들의 실업교육이 조선사회와 동떨어진 것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았다. 세계로의 진출보다 먼저 조선 시장과 산업을 조선인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윤치호의 의지였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윤치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선 산업의 세계화를 주장하며 일본 방적사와 독일제 물감을 수입하여 최고 품질의 목면을 생산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송고직’은 해외로 수출하였으나 지속적인 시장 형성에 실패하여 고전하였다. 결국 ‘한영서원’의 농업중심 조선중심의 실업교육은 일제의 강제력과 선교사들의 어설픈 정책으로 변질 왜곡되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

42) 김영희, 『약전』, 267쪽.

43) 김영희, 『약전』, 267쪽.

### Ⅲ. ‘신민회’운동과 모범촌 설립운동 그리고 학생YMCA운동

윤치호의 개성 선교는 한영서원의 실업교육에 머물지 않고 자본가 집단의 형성과 사업화로 나가려 하였다. 때마침 1907년 2월 귀국한 안창호는 윤치호 양기탁 이갑 등을 만나 1907년 4월 비밀리에 발기인대회를 가지고 ‘신민회’를 창건하였다. 이후 ‘신민회’는 발기인들의 세력을 기반으로 곧바로 회원들을 입회시켜 도 단위 군 단위 지부를 결성하고<sup>44)</sup> 지역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신민회’ 회원들은 민족 산업을 일으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통용장정’을 만들어 실업가들에게 영업방침을 지도하고, 회원들의 합작 투자로 실업장을 만들어 실업계의 모범을 보이려 하였다.<sup>45)</sup> 특히 평양지역 ‘신민회’ 회원들은 평양시내에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새롭게 설립되는 학교들에 서적을 공급하였으며, 평양 마산동에는 ‘평양자기제조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일본인들의 도자기 공급망을 대체하려 하였다. 그리고 평북지역 회원들은 ‘협성동사’(協成同事, 평북 남청정의 신민회 회원 중심) ‘상무동사’(商務同事, 평북 용천 양시에 세운 상사회사), ‘상무동사총지점’(평북 선천)를 통해 지역 상인들을 결집하고, 이들에게 ‘파마양행’(巴馬洋行, 이탈리아계 무역회사)의 수입품을 공급함으로써 일본과 중국 상인들이 독점한 서양 상품의 공급망을 벗어나려 하였다. 그리고 방직회사와 연초회사를 만들어 조선의 시장수요에 대응하려 하였으며, 황해도에는 모범농장도 설립하려 하였다.<sup>46)</sup> 뿐만 아니라 ‘신민회’는

44) 윤경로, 1986, 「신민회의 창립과정」, 『사총』 30, 236쪽, 250쪽.

45) 憲兵隊機密報告, 「大韓新民會趣旨書 및 同會通用章程 등 報告件」 『統監府文書』 6, 1998~2000, 국사편찬위원회.

46) 신용하, 1985,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86~91쪽.

지역의 조선 상인들을 결집하여 불매운동 상권수호운동 자작자급운동을 전개하여 일제의 경제 침투에 대항하여 민족 산업을 일으키려 하였다.

최고 간부로 ‘신민회’에 가담한<sup>47)</sup> 윤치호도 개성상인들을 모아 ‘신민회’ 지부를 설립하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신민회’ 회원을 집중적으로 모집해야 할 시기(1907년 4월~10월) 윤치호는 남감리교 선교부에 개성에 모범촌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윤치호는 남감리교 아시아 선교부 총무인 램부드(M. R. Lambuth)를 초청하여 개성 선교의 타당성을 인정받고<sup>48)</sup> 이를 바탕으로 캔들러 감독에게 모범촌 설립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sup>49)</sup> 이것은 윤치호의 ‘신민회’ 회원 획득방법이 다른 지방과 달랐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윤치호는 모범촌 설립을 통해 개성상인들에게 근대적 사업의 모범을 보이고 투자를 받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신민회’ 회원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서북지방 ‘신민회’ 회원들이 ‘마산동자기회사’를 설립한 것과는 반대로, 먼저 규모의 사업체를 만들고 사업의 확실성을 보여 이재에 명민한 개성상인들의 투자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신민회’ 회원들을 모집하려 했던 것이다. 윤치호는 이재에 적극적이지만 시대적 비전이 부족한 개성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사업체를 만들고 이에 대한 투자 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개성상인들을 설득하려 했던 것이며 그 사업체 설립이 모범촌 설립이었다고 보인다.

종교적으로도 ‘대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 개성의 남감리교는 북구와 남구로 분할할 정도로 성장했으므로<sup>50)</sup> 적극적인 선교 사업을 통하여 개성상인들을 모범촌운동에 참여시키려 한 것이다. 윤치호는 개성에 남감리교의 모범촌을 만들어 농업 생산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통해

47) 신용하, 위의 책, 18쪽.

48) Letter to W. A. Candler, 1907. 4. 16. 『윤치호 서한집』.

49) Letter to W. A. Candler, 1907. 4. 16.; Letter to W. A. Candler, 6. 3. 『윤치호 서한집』.

50) 유동식, 1995, 『한국감리교회역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246~249쪽.

산업화로 나가는데 개성상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려 하였고 ‘신민회’ 결성에 까지 연결시키려 했던 것이다. 윤치호는 개성상인들을 ‘신민회’에 가입시키기 위하여 개성에 모범촌 설립을 계획하고 종자돈 마련을 위해 미국 선교본부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 일을 위해선 선교본부가 있어야 하고 교육적 풍토 적어도 100여 개 이상의 작은 집들이 어울어 질 수 있는 큰 길 거의 넓은 땅 이런 복지사업을 시작할 돈이 있어야 합니다.”<sup>51)</sup>

“그 땅의 500에이커(60여 만 평-연구자)의 지역을 얻게 된다면”, “저희가 목적에 맞게 구입하려고 하는 땅은 거주지로서 과실농사와 원예하기에 가장 좋은 송도의 도심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sup>52)</sup>

“겨울동안에 토지를 더 사두지 않으면 구입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을 때 전보로 ”Get“이라고 써 보내 주시면 ”땅을 사라“는 지시로 알겠습니다.”<sup>53)</sup>

“5000불의 돈으로도 선교회의 토지에 작은 계곡 하나만 덧붙일 정도라면 저희는 그곳에서 복지사업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하도록 기부금을 낸다면 저희가 이미 가진 땅 주위로 좀 더 넓게 많은 땅을 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단순히 저희가 그것으로 많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 돈을 사용하는데 조건을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sup>54)</sup>

위의 인용들에서 보듯 윤치호는 모범촌을 개성 도심에 세워 개성상인

51) Letter to W. A. Candler, 1907. 4. 16. 『윤치호 서한집』.

52) Letter to W. A. Candler, 1907. 6. 3, 『윤치호 서한집』.

53) Letter to W. A. Candler, 1907. 10. 13, 『윤치호 서한집』.

54) Letter to W. A. Candler, 1907. 12. 15, 『윤치호 서한집』.

들을 자극하려 하였다. 모범촌을 통해 개성상인들에게 미국 남부에서 실시하는 새로운 농업방법을 알리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려한 것이다. 윤치호는 조선에 필요한 새로운 농업방식과 산업화를 개성상인들과 같이 추진하기 위해 모범촌을 설립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실정을 모르는 선교부의 이런 저런 간섭도 배제하려 하였다. 개성 도심에 60여 만 평의 땅을 확보하여 교회와 학교 병원을 짓고, 마을을 만들고, 주변 부지에는 과수원과 채소밭 그리고 수확물을 원료로 상품을 만드는 공장을 지으려 하였다. 한영서원의 교육실습을 넘어 산업화로 이끌려는 것이며<sup>55)</sup> 개성상인들의 투자를 통해 ‘신민회’ 결성을 유도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윤치호의 세력에 기대어 이권을 얻으려던 개성상인들은 ‘신민회’ 가입에 나서지 않았다. 윤치호의 ‘신민회’ 가입권유에 설득되었다면 개성상인들은 송방을 이용한 지부나 분회가 개성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결성되었을 것이나 개성지역 활동마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윤치호의 권유로 ‘신민회’에 가입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sup>56)</sup> 개성상인들은 윤치호의 ‘신민회’ 가입 권유에 등을 돌린 것이다. 게다가 선교부의 지원이 부족하여 윤치호가 계획한 모범촌 사업도 실현되지 못했다. 윤치호는 개성상인들을 설득하지 못했으며, 그들에게 농업중심의 산업화를 보여주지도 못했다. 윤치호의 개인적 노력으로 개성에 70에이커(8.5만평) 정도의 학교 부지를 확보하여<sup>57)</sup> 과수원을 조성하고 가옥들을 개조하여 즉답기를 들여 놓고 목면을 생산하는 정도의 실업교육에 그치고 말았다. 윤치호는 모범촌운동을 통해 ‘신민회’ 활동에 의욕적으로 참여하려 하였

---

55) “단순한 학교 실습보다는 농업과 간단한 산업의 범위로 시작하여 밀고 나갈 것입니다.” Letter to W. A. Candler, 1907. 6. 3, 『윤치호 서한집』.

56) 윤경로, 1988, 「105인 사건을 통해본 신민회연구」, 고려대 박사, 137-141쪽

57) Letter to W. A. Candler, 1907. 10. 13, 『윤치호 서한집』.

으나, 개성상인들의 외면으로 윤치호의 ‘신민회’ 활동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기반 세력이 없는 이름뿐인 회장으로 남게 되었다.

그래도 윤치호는 개성상인들을 산업화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1910년 남감리교 평신도대회 참여를 빌미로 미국을 방문한 윤치호는 조선의 선교 현황을 알리고 모범촌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였으나 선교 본부나 교회들은 냉담하였다.<sup>58)</sup>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윤치호는 귀국하는 길에 영국 에딘버러(Edinburgh)에서 열린 제2회 세계선교대회(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에 참가하여 선교지 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선교사들의 독단적 선교를 비난하였다.<sup>59)</sup>

윤치호는 이런 저런 노력이 성과를 얻지 못하고 개성상인들의 투자나 ‘신민회’ 지부 결성이 어려워지자 윤치호는 방법을 바꾸어 한영서원과 YMCA를 통해 청년들을 새로운 자본가로 육성하려 하였다. 일찍이 YMCA 활동을 경험한<sup>60)</sup> 윤치호는 ‘독립협회’ 활동으로 인한 5년간의 지방 생활에서 돌아오자 ‘황성기독교청년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1905년부터 이사로 1908년부터는 부회장을 담당하면서 매달 학생들에 대한 강연과 월례 회의를 주재할 뿐 아니라 회관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sup>61)</sup> 이렇게 YMCA 근대화 교육과 조직 활동에 깊이 관여하던 윤치호는 ‘신민회’의 남부지방 사무를 담당하던<sup>62)</sup> YMCA를 적극적

58) 木下隆男, 2009, 「한국YMCA와 105인사건」, 『인문학연구』 38·39합집, 숭실대 부설 인문과학연구원 인문과학연구소, 194쪽.

59) “Spring Lecture on 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 of Edinburgh 1910”, 2010 Project Edinburgh University, 2003. 4. 26.. Kyo Seong Ahn; 木下隆男(끼노시마 따까오), 「105인사건과 청년학우회」, 숭실대 박사, 2011, 93~94쪽에서 재인용.

60) 윤치호는 미국 유학시절 밴더빌트 대학 YMCA 운동에 참여하였다. 에모리 대학 YMCA의 지원으로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에모리 대학에서도 YMCA 운동에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방학을 이용한 설교여행을 다니면서 미국 남부 각지의 YMCA 운동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61) 전택부, 1978,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정음사, 92쪽.

62) 대한 YMCA연맹, 1986, 『한국YMCA운동사; 1895~1985』, 로출판, 16~28쪽.

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1910년 6월 서울 외곽에서 개최된 하령회로 학생 YMCA가 형성되자 윤치호는 이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윤치호는 1911년 6월 제2회 YMCA 하령회를 개성 ‘한영서원’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하였다. 전국 21개 학교에서 93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대회가 성황리에 전개되었으며, 1911년 말 까지 배제학당 상동청년학원 경신학교 세브란스 의학교 한영서원 등에 학생YMCA 조직이 형성되었다.<sup>63)</sup> 윤치호는 학생YMCA 조직을 통하여 개성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는 지역 자본가내지 독립운동가로 육성하려 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개성상인들은 윤치호의 노력을 외면하여 윤치호가 개성에 세운 ‘신민회’조직은<sup>64)</sup>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윤치호의 신민회 활동을 눈치 챈 일제 경찰은 1912년 ‘105인 사건’으로 윤치호를 구속하고, 이름뿐인 ‘신민회’ 활동에도 1915년 2월까지 ‘신민회’ 회장으로 옥살이를 시켰다.<sup>65)</sup> 결국 윤치호의 모범촌 중심의 ‘신민회’운동은 선교부의 지원 부족과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무엇보다도 개성상인들의 외면으로 싹도 틔우지 못하였다.

#### IV. 개성상인들의 ‘신민회’에 관한 반응

개성상인들은 조선왕조 초기부터 개성 시전을 바탕으로 행상조직을 만들고 송방(松房)을 설치하여 전국적 상인세력으로 성장하였다.<sup>66)</sup> 조선

63) 대한 YMCA연맹, 위의 책, 29~34쪽.

64) 1912년경 개성에도 신민회 총감소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윤경로, 1988, 앞의 논문, 145쪽.

65) 木下隆男, 2011, 앞의 논문, 78~79쪽.

왕조 후기에 이르러서는 전국적 조직을 이용해 왕조의 공납제도를 담당하고, 관부의 거대한 자금을 이용하는 특혜도 누렸다.<sup>67)</sup> 그러나 국가가 엄금하는 불법적 인삼무역에 참가하였고, 만상(灣商)이나 동래상인과 손잡고 은(銀)과 동(銅)의 국제무역에도 참여하였다. 게다가 인삼의 가치를 발견하고<sup>68)</sup> 개성을 인삼 재배지로 만들고 홍삼을 만들어 산업자본가로 성장하는 탁월한 경영력도 보였다.<sup>69)</sup>

이 과정에서 개성상인들은 고유한 장부기재법인 송도사개치부법(松都四介置簿法)을 만들었고, 시변(時變)이나 의변(義變)을 통해 개성상인들끼리의 자금 융통도 원활하게 만들었다.<sup>70)</sup> 세째 차인제도와 송방을 형성하여 전국적 상권과 정보 그리고 자본가 예비군을 가졌으며,<sup>71)</sup> 넷째 오랜 기간 축적한 막대한 자본이 있었다.<sup>72)</sup> 다섯째 개항이후 외국 상인들의 진출에 대응하여 차인동사제도와 지방상출이라는 고유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개항장과 새로운 상업 유망 지역에 진출하였으며, 여섯째 새로운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수입선도 다변화하여 내지시장(內地 市場)의 장악력도 잃지 않았다.<sup>73)</sup>

- 
- 66) 강만길, 1972, 「개성상인연구 :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성장」, 『한국사연구』 8, 한국사연구회, 635쪽.
- 67) 강만길, 1972, 위의 글, 619~620쪽.
- 68)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1920년대 후반 중국에서 거래된 원산지별 인삼 가격을 살펴 보면 아메리카산은 근당 20~30원, 만주산은 근당 10원 내외 일본산은 5원 내외 개성산 홍삼은 150원 내외였다고 한다. 오성, 2002, 「한말-일제시대 개성상인의 상업활동과 인삼」, 아모레퍼시픽재단, 726쪽.
- 69) 강만길, 1972, 앞의 논문, 635~636쪽; 양정필, 2002, 「19세기 개성상인의 자본전환과 상업자본의 성장」, 『학림』 23, 연대사학연구회, 30쪽.
- 70) 善生永助, 1924. 12, 「開成의 商業慣習에 就하여(承前)」, 『조선, 조선문』 87, 조선총독부, 67~68쪽.
- 71) 양정필, 2008, 「근현대 개성상인의 경제조직 시론: 3대 상업제도와 3대사업부분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20, 역사문제연구소, 56~65쪽.
- 72) Y. H., 1935, 8. 16, 「송도를 찾아들어」(4), 『고려시보』, 고려시보사.
- 73) 양정필, 2014, 「개항기 경제변동과 개성상인의 활동」, 『역사와 실학』 55, 268쪽.

이렇게 볼 때 개성상인들은 고유한 전통과 상업제도 그리고 투자영역을 확립한 상인집단으로 조선 내에서 근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이었다. 윤치호는 조선의 자본주의화를 위해 개성상인들의 자본력과 경영 역량을 최대한 이용하려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의 근대화를 담당할 실질적인 세력으로 또는 윤치호의 파트너로 개성상인들을 선택하고 개성을 남감리교의 선교지로 삼았던 것이다. 하지만 개성상인들은 윤치호의 근대화운동을 외면할 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에 나서지도 않았다. 개성상인들은 거액의 재화를 축적하였지만 기업가로 나서지도 않았으며, 근대적 기업 설립도 다른 도시에 비해 10년 정도 뒤쳐질 정도로 전통적 경영에서 떠나지 않았다. 1920년대 이르러 근대적 회사가 설립되었지만 그것도 삼포나 곡물을 다루는 유통회사에 치중되어 산업자본가로의 전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sup>74)</sup>

이렇게 개성상인들은 보수적 경영에서 떠나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기존 연구들은 개성상인의 전통적 경영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sup>75)</sup> 보고 있다. 하지만 이익 구현에 적극적이어서 불법적 무역도 마다하지 않았던 개성상인들이 일제의 침략과 경제정책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경제적 적극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개별 상인들의 봉건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개성상인들의 이익이 일제의 침략과 경제정책 속에서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개성상인들은 일제의 침략 정책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전통적인 상업과 토지경영 그리고 고리대금업에 투자하고 있었다.<sup>76)</sup> 개성상인들이 보수적 경영을 지속한 이유가 윤치호의 근대화 노력을 외면한 이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그 이유를 살피고자 한다.

74) 김성수, 2002, 「개성상인정신발달사연구」, 『경영사학』 통권29, 한국경영사학회, 27쪽.

75) 조기준, 1973, 『한국기업가사』, 박영사, 270~271면. 김성수, 위의 논문, 45~46쪽.

76) 양정필, 2008, 앞의 논문, 70~82쪽.

개성상인들의 자본 구성은 토지가 70% 이상이고 나머지 30% 정도는 시변(市邊) 중심의 고리대금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개성상인들의 수입은 인삼과 미곡 그리고 시변의 이자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다.<sup>77)</sup> 떠돌이 행상으로 자산을 형성한 개성상인들은 농업에 투자하여 정착하는 것이 간절한 희망이었을 것이고 수익이 좋은 투자처였기에 행상으로 성공하면 농경지에 투자하여 생긴 결과일 것이다.

반면 식량난에 시달리던<sup>78)</sup> 일제는 개항기부터 일본 미와 대체 가능한 조선 미 수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후 조선 미를 수탈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개발하고 지원하였다. 1910년대에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식민지 지주제를 확립하여 잉여 미 수출을 장려하였는데 쌀값도 4배 이상 상승하였으므로 개성상인들의 토지 이익은 막대하게 증가하였다. 개성상인들의 토지경영은 일제의 식민지 미곡무역과 농업정책 속에서 많은 이익을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개성상인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거나 경영방식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경기 북부와 황해도 경작지의 상당부분을 소유하였던<sup>79)</sup> 개성상인들은 일제의 미곡수탈정책에 편승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어 산업자본가로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77) 1900년대 자료는 아니지만 1928년경 개성상인들인 소유한 자본의 내용을 보면 경기도 주변과 황해도에 소유한 경작지의 견적 가격이 약 6000만원, 기타 부동산이 약 1200만원, 시변으로 운영되는 자본금이 약 3500만 원 정도로 총 1억 200만원 정도였으며, 1935년 무렵에는 1억 5천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Y. H., 「송도를 찾아들어」(4), 『고려시보』 1935. 8. 16.; 개성에서 매년 산출되는 수입은 1938년의 경우 1천만 원이었는데, 1천만 원의 수입 원천을 분류하면 토지수입이 약 450만 원 인삼경작 수입이 약 120만 원. 상업수입이 약 85만 원 시변(時邊)수입이 35만 원 기타(市邊 수입-연구자) 약 300만원이었다고 한다. 金在濼, 『개성경제계의 회고와 전망』, 『高麗時報』 104, 1939. 1. 1.

78) 정연태, 1988, 「1910년대 일제의 농업정책과 식민지 지주제」, 서울대 대학원, 석사, 10~13쪽.

79) 양정필, 2000, 「근현대 개성상인 경제조직 시론:3대 상업제도와 3대 사업부분을 중심으로」, 연대 대학원, 석사, 81~82쪽.

하겠다. 즉 이익 획득에 집요한 개성상인들이 확대경영이 실현되던 경제 환경을 떠나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경향은 삼포경영에서도 나타난다. 개성상인들은 인삼재배를 통해 산업자본가로 성공한 사람들로 윤치호에게는 농업의 산업화를 위한 이상적인 파트너였을 것이다. 그러나 개성상인들은 봉건적 삼포경영을<sup>80)</sup> 유지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였다. 전매제도를 일제의 재정확보를 위한 수탈대상으로만 보거나<sup>81)</sup> 개성상인들의 자구노력으로 전매제도를 극복했다고 보는데<sup>82)</sup> 그치고 있다. 하지만 전매사업에 대한 연구가 다양해지고 이웃 식민지와 비교되면서 개성상인들의 삼포 경영이 별로 훼손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sup>83)</sup>

봉건적 황실의 수입확대를 위한 대한제국의 인삼전매는 제도적 미비와 봉건왕조의 탐욕으로 삼포업자들을 어렵게 하였다.<sup>84)</sup> 이용익의 노력으로 어려움은 잠시 감소하였지만<sup>85)</sup> 1905년 시행된 일제의 화폐개혁으로 삼포업자들은 더욱 어려워졌다.<sup>86)</sup> 그러나 1907년 이후 조선 내정을 장악한 일제는 1908년 8월 홍삼전매법을 비롯한 6건의 홍삼관련 법률을 고시하였고, 1910년 1월 삼정국(參政局)을 설치하여 홍삼관련 업무도 장악하였다. 일제는 그들의 농간으로 위촉된 인삼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삼

80) 양정필, 위의 논문, 76~80쪽.

81) 윤선자, 2005, 「일제의 경제수탈과 개성의 삼업」, 『한국근현대사연구』 35, 한국근현대사학회, 106~108쪽.

82) 양정필, 2010, 「1910년대 일제의 삼업정책과 개성삼포주의 활동」, 『역사문제연구』 24, 역사문제연구소, 276~292쪽.

83) 대만의 특산품인 장뇌(樟腦) 전매제도를 살펴보면 조선의 인삼전매제도가 일제의 수탈정책을 만족시키는 수준은 아니었다. 專賣局調査課, 1912, 『帝國專賣制度總攬』, 專賣局調査課, 149~154면; 北岳山學人, 1931. 3, 「植民地の 朝鮮의 財政論」, 『삼천리』 3-3, 삼천리사, 32~34쪽.

84) 양정필, 2009, 「대한제국기 개성지역 삼업의 변동과 삼포민의 대응」, 『의사학』 통권 35, 대한의사학회, 139~141쪽.

85) 양정필, 위의 논문, 142쪽.

86) 양정필, 위의 논문, 141~143쪽; 150쪽.

포경작자들을 포상하고, 자금뿐 아니라 삼업조합의 결성과 재배기술의 개발도 지원하였다.<sup>87)</sup> 일제는 재정 확보를 위해 인삼 전매제도를 장악하고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을 통해 홍삼의 전매 이익을 독점하였다.

그런데 인삼의 재배와 판매가 일제의 유통망에 흡입되면서 홍삼용 인삼 재배는 개성이 독점하게 되었다.<sup>88)</sup> 뿐만 아니라 생산체제도 정비되고, 시장 정보도 확보하였다. 이것은 조선왕조의 수요에 따라 움직이던 봉건적 전매제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인삼전매제도는 홍삼용 인삼 재배를 개성이 독점하도록 하였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개성상인들의 이익은 안정적으로 보장되었다. 더구나 일제는 홍삼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인삼은 경작자에게 돌려주어 백삼의 상품화를 가능케 하였다. 삼포업자들의 적극적 상품화로 백삼제조가 발전하였지만 대만의 전매제도와 비교하면<sup>89)</sup> 백삼의 상품화는 일종의 특혜였다. 일제는 인삼 관련 사업 전체를 전매제로 묶을 수 있었지만 개성을 홍삼용 인삼의 재배지로 만들고 백삼 유통을 허용하여 개성상인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었다.<sup>90)</sup> 미쓰이물산의 착취는 개성상인들의 봉건적 이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형성된 해외시장의 유통 이익을 가로채는 정도였다.

개성상인들을 민족자본가로 변신하지 못하게 막은 또 다른 분야는 전

87) 정광중, 1995, 「일제시대 전매제하 인삼생산의 전개과정」, 『문화역사지리』 7,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97~109쪽; 양정필, 2010, 앞의 논문, 268~274쪽.

88) 정광중, 위의 논문, 96~97쪽.

89) “식민지 중에서 이 의미에 있어서 성공한 것은 아직 대만식민지 뿐이다. 대만은 明治29년부터 明治37년까지의 합계 30,308,691원의 보충금을 어땀으나 其後 전혀 독립하여 그 세출을 마칠뿐더러 이제는 일본 내지 재정에 있어서 다소의 공헌을 할 수 있게까지 되었다. -중략- 조선은 明治44년 합병 당초에는 1235만원에서 출발하여 大正7년 300만원에 감하고 大正8년도에는 일시 중지하기까지 이르러서나 大正8년 만세사건의 발생을 보고 이 때문에 大正9년에 이르러서는 보충금을 필요로 하기에 이르렀다.” 北岳山學人, 앞의 글, 32~33쪽.

90) 오성, 2002, 「한말-일제시대 개성상인의 상업활동과 인삼」, 아모레퍼시픽재단, 732쪽.

통적인 대부업이었다. 조선시대부터 장날에는 시변(市邊) 또는 장변(場邊)으로 부르는 금전대부가 환전객주나 환전거간들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다. 즉 좌고나 행상들이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일변 월변 년변 등의 형태로 자금을 대부하였다.<sup>91)</sup> 개성상인들은 각지의 송방들을 통해 송금과 환전을 대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장날 금전대부를 담당하게 되었고<sup>92)</sup> 전국에 걸쳐 3500만 원정도의 시변(市邊)을 운영하였다<sup>93)</sup>. 개성상인들은 근대적 금융업에 대한 투자 이익이 전통적 고리대금업의 이익을<sup>94)</sup> 능가하지 못했기에 ‘대한천일은행’의 경영에서 탈락하였지만<sup>95)</sup> 별다른 출구를 모색하지 않았던 것이다.

개성상인들은 일제의 침탈과 지배 속에서도 기존의 농업 경영 삼포경영 그리고 대부업에서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고 오히려 확대 보장되었다. 그 때문에 개성상인들은 근대적 자본가로 나서지 않았고 윤치호의 근대화 노력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개성상인들을 조선의 민족 자본가로 변신시키려던 윤치호의 노력은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윤치호의 개성 중심의 근대화 운동은 적극성을 상실한 종교운동으로 치부되는데 그치고 말았다.

---

91) 조병찬, 1992, 『한국시장경제사』, 동국대출판부, 92~125쪽.

92) “금일 송방의 업무는 무역회사 은행, 우체국 업무를 보고 있다.” 문책제 기자, 1917, 「金基炯씨와 담화-개성의 상업을 발전할 무역회사와 개성의 공업을 흥기할 전기회사」, 『半島時論』 10. 37쪽.

93) “전국에 출상 가있는 차인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자본금은 4000만~5000만원으로 추산” 박재청, 「시변소론」 6, 『고려시보』 1933. 8.

94) “원금 중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 중략 - 場邊(장뻘놀이)라고 하여 그 기간은 보통 한 장 도막(5일간)의 단기로서 이율은 최고 10할(월리로 60할)에 달하고 있다.” 박원배, 1981, 「坐商-한국상법사적 고찰」, 『법사학연구』 6, 한국법사학회, 126쪽.

95) 경기지역 9개 은행 중에 개성에 지점을 설치한 곳은 2곳이며, 개성에 지점을 설치하였던 조선상업은행(대한천일은행이 전신)은 개성지점을 폐쇄하였다. 이승렬, 2000, 「일제강점기(1906~1919) 대한천일은행과 경인지역 상공인」, 『역사문제연구』 5, 역사문제연구소, 67쪽.

## 맺음말

유학으로 미국 남부의 농업을 목격한 윤치호는 개성상인들의 풍부한 자본과 상재(商材)를 농업과 산업 발전에 이용하기 위해 개성선교를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그러나 남감리교의 지원 부족과 선교사들의 서울중심 선교정책으로 개성지역 선교는 어려움이 많았다. 윤치호는 선교부의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한영서원을 설립하여 실업교육에 나섰으며, ‘신민회’를 결성하고 모범촌을 형성하여 개성상인들을 조선의 산업자본가로 결집 육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농업중심의 실업교육은 1911년과 1915년 일제가 제정하고 개정한 ‘사립학교령’으로 반공과가 공업부로 재편되어 일제가 요구하는 노동자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한영서원의 실습장은 선교사들의 주도로 근대 공장으로 변모하였으나 조선의 산업화를 견인하지 못하였고, 가난한 학생들의 학비를 제공하는 선교부의 공장으로 전락하였다. 더구나 윤치호가 파트너로 선정한 개성상인들은 일제의 회유정책에 편승하여 인삼과 미국 중심의 토지 경영과 고리대금업에 안주하면서 윤치호의 ‘신민회’ 운동을 외면하였고, 산업자본가로의 변신도 도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개성상인들을 근대화의 파트너로 선택한 윤치호는 개성상인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종교운동 사회운동 교육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개성상인들의 변화를 기다렸다고 하겠다. 윤치호는 유학시절 입장료를 내면서 쫓아다녔던 존스(S. P. Jones : ‘남부의 Moody’로 불림)의 부흥운동이<sup>96)</sup> 조선에서도 재현되어 라이먼(T. G. Ryman)과 같은 회생적인 자본가

96) 『윤치호 일기』 2, 1890년 5월 3일; 5월 25일; 5월 26일; 5월 28일; 6월 1일; 1892년 12월 3일; 12월 4일. 윤치호는 천막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존스(Samuel Porter Jones)

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sup>97)</sup>

1890년대 후반 ‘독립협회’를 통해 조선의 정치적 변혁을 시도하였으나 수구세력의 반발로 실패한 이후 윤치호는 남감리교의 개성 선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개성상인들과 경제적 근대화를 도모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기적인 식민지 토착자본의 외면과 선교사들의 자기편의적 선교정책 그리고 일제의 탄압에 둘러 싸여 윤치호의 조선 근대화 노력은 1910년대 중단되었다.

---

의 설교를 들었다. 막말도 쏟아내는 존스의 설교에 주변 사람들의 비판도 많았지만 자본주의 발전으로 나타난 인간의 타락과 비도덕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존스의 순회 설교(대표적 주제; *Quit your Meanness*)에 윤치호는 심취하였다. 또한 내쉬빌에 지어진 ‘라이먼 오디토리움’의 건축과정과 완공도 지켜보았을 것이다.

- 97) “Thomas Green Ryman (1843 - 1904), 내쉬빌에 여러 개의 술집과 선단을 가진 유흥업 종사자였다. 라이먼은 1885년 존스(Samuel Porter Jones)의 부흥회를 방해하려고 부흥회에 참여하였으나 존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후 부흥집회를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교회 건축을 약속하였다. 라이먼은 내쉬빌 사람들과 함께 10만 달러의 자금을 모으고 7년에 걸친 건축으로 Ryman Auditorium(또는 Ryman Tabernacle)을 1892년 완공하였다. National Park Service. 2009, 『National Historic Landmark summary listing』, Retrieved. 2016년 12월 열람.

## 참고문헌

### 1. 사료

- 반도시론사, 『半島時論』  
고려시보사, 『고려시보』,  
김영희, 1999, 『좌옹윤치호선생약전』, 좌옹윤치호문화사업위원회,  
善生永助, 1924. 12, 「開成의 商業慣習에 就하여(承前)」, 『조선, 조선문』  
87, 조선총독부  
윤치호, 『윤치호 일기』2-7, 국사편찬위원회,  
윤치호 지음, 윤경남 역, 1995, 『구역 좌옹윤치호 서한집』 호산문화.  
좌옹윤치호문화사업회 편, 1998, 『윤치호의 생애와 사상』, 을유문화사  
憲兵隊機密報告, 「大韓新民會趣旨書 및 同會通用章程 등 報告 件」 『統監  
府文書』 6, 1998~2000, 국사편찬위원회.  
專賣局調査課, 1912, 『帝國專賣制度總攬』, 專賣局調査課  
北岳山學人, 1931. 3, 「植民地的 朝鮮의 財政論」, 『삼천리』 3-3, 삼천리사

### 2. 논저

- 강만길, 1972, 「개성상인연구 :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성장」, 『한국사연구』  
8, 한국사연구회  
권윤진, 2004, 「한말 계몽운동에서의 민족문제 인식과 근대개혁론」, 연대  
교육대학원 석사  
김성수, 2002, 「개성상인정신발달사연구」, 『경영사학』 통권29, 한국경영  
사학회  
김소희, 2006, 「윤치호의 조선독립보전방안연구-모범촌 구상(1906~1910)  
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 33쪽.  
김수인, 1983, 「평신도로서의 윤치호의 신앙과 그의 활동에 관한 연구」,

감신대 대학원 석사

- 김 정, 1970, 「남북전쟁 후의 남부의 흑인문제」, 『논문집』 5, 광주교대,  
노대환, 2010, 「1880년대 문명개념의 수용과 문명론 인식」, 『한국문화』  
43, 서울대 규장각 국학연구원  
대한 YMCA연맹, 1986, 『한국YMCA운동사; 1895~1985』, 로출판,  
류계무, 2004, 「윤치호 사회진화론 특징 연구 : 애국계몽운동 시기(1906~  
1910)을 중심으로」, 연대 대학원 석사  
木下隆男, 2011, 「105인사건과 청년학우회」, 송실대 박사,  
박신애, 2008, 「개화기 윤치호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적용」, 이대 석사  
박원배, 1981, 「坐商-한국상법사적 고찰」, 『법사학연구』 6, 한국법사학회  
성경준, 2006, 「마크 트웨인과 남북전쟁 이후의 자본주의-도금시대를 중  
심으로」, 『근대영미소설』13-2, 한국근대영미소설학회  
손현덕, 1989, 「남북전쟁 이후 미국 남부의 소작제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  
석사  
신용하, 1985,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안 신, 2007, 「좌옹 윤치호의 종교경험과 종교론 : 종교현상학적 해석」,  
『한국기독교와역사』 2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양동휴, 1990, 「남북전쟁 이후 미국 남부 경제의 변모-미국 남부경제의 발  
전 1860~1880」, 『경제논집』 29-3, 서울대 경제연구소  
양정필, 2008, 「근현대 개성상인의 경제조직 시론: 3대 상업제도와 3대사  
업부분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20, 역사문제연구소  
양정필, 2009, 「대한제국기 개성지역 삼업의 변동과 삼포민의 대응」, 『의  
사학』 통권35, 대한의사학회  
양정필, 2010, 「1910년대 일제의 삼업정책과 개성삼포주의 활동」, 『역사  
문제연구』 24, 역사문제연구소  
양정필, 2014, 「개항기 경제변동과 개성상인의 활동」, 『역사와 실학』 55  
양현해, 1994, 『윤치호와 김교신 : 근대 조선에 있어서 민족적 아이덴티티와

- 기독교』, 한울
- 오 성, 2002, 「한말-일제시대 개성상인의 상업활동과 인삼」, 아모레퍼시픽재단
- 유동식, 1995, 『한국감리교회역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 유영렬, 1985, 『개화기 윤치호 연구』, 한길사
- 윤경로, 1988, 「105인 사건을 통해본 신민회연구」, 고려대 박사
- 유미진, 2005, 「윤치호의 미국유학과 근대문명관」, 이대 대학원 석사,
- 유불란, 2013, 「우연한 독립의 부정에서 문명화의 모순된 긍정으로-윤치호의 사례」, 『정치사상연구』 19-1, 한국정치사상학회
- 이덕주, 2010, 「윤치호와 한말 기독교 선교 : 위기의 시대 평신도 선교의 한 유형」, 『神學과 世界』 통권 68호, 監神學大.
- 이승렬, 2004, 「한말 은행가 집단의 형성과 광무정권: 대한천일은행의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24, 연대출판부
- 이희환, 1985, 「開化期 尹致昊와 基督教信仰」, 『논문집』, 群山大學
- 전택부, 1978,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정음사,
- 정광중, 1995, 「일제시대 전매제하 인삼생산의 전개과정」 『문화역사지리』 7,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정용화, 2001, 「문명개화론의 뒷; 「윤치호의 일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론』 41-4, 한국국제정치학회
- 조병찬, 1992, 『한국시장경제사』, 동국대출판부
- 진기섭, 1992, 「尹致昊의 民族運動에 나타난 宣敎活動 考察」, 監神大 석사
- 최남옥, 1999, 「윤치호의 개화론 연구」, 이대 대학원 석사
- 황혜성, 1996, 「신 남부 백인의 소수집단 심리와 극단적 인종주의」, 『미국학논집』 28-1, 한국아메리카학회

## Abstract

# Yun Tchi-ho And The Mission of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 Focussed on Gaeseong Region -

Kang Myung-sook

After studied in China and America from 1885 to 1893, Yun Tchi-ho(Yun) came to Korea and promoted the Mission of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MECS) in Gaeseong. Through the Mission of MECS Yun wanted to modernize Korea with the Gaeseong Region Merchants. Say in other words, in order to develop the agriculture and industrialize the Korea, Yun chose the Gaeseong Region Merchants to utilize their capital and abilities of management.

But the South(America), defeated in Civil War, wanted to reconstruct the economy of the South. In oder to develop the economy and prevent the Blacks' emigration, the South made an investment in Black and Africa mission. Since the resources of MECS were exhausted and they hated Chinese, the Mission of Asia were difficult and Korean Mission were more difficult. Besides korean mission in Gaeseong region was more difficult for the policies of missionaries. Missionaries wanted to take mission in Seoul and evangelize instead of setting up the schools and dispensaries.

In oder to enlarge the mission of MECS in Gaeseong, Yun emigrated to Gaeseong and erect the Anglo-Korean School. Through teaching the agricultural and the industrial skill, Yun wanted to modernize korea. By the

way Japanese ‘Law Governing Private Schools’ was distorted the education of skills in Anglo-Korean School. Skill for agriculture was changed into skill for factory. Also the policies of missionaries were distorted the skill education. C. H. Deal(teacher in Anglo-Korean School) changed the manual factory into machine industry. In spite of exporting the cotton textile, the machine industry was not developed the korean cotton textile industries.

And Yun Participated the New People’s Society to gather the Gaeseong Region Merchants. Also Yun wanted to make them into national capitalists. But they disregarded the Yun’s efforts and went on board japanese’ appeasements in production of rice, ginseng, and loan markets. The Gaeseong Region Merchants did not want any economical damage.

By the japanese’ colonial oppression, the Gaeseong Region Merchants’ self-centered minds and the egoistic missionaries’ policies, Yun’s efforts of korean modernization were failed.

Keywords : Yun, Tchi-ho,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the Anglo-Korean School, the New People’s Society, the Model Town Project, the Movement of YMCA, Gaeseong, Gaeseong Region Merchants

